

◆원가투병에 증복기생하는 공방이 함유됨
◆물에 수화하여 삼포하면 근체내 침투로 효과만점
상담 및 구입처: T. 02-406-4462



친환경농업 이모저모

2008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서 유치 추진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으로 뿔어져

2008년에 개최되는 제16회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세계대회의 우리나라 유치가 추진된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대회유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연맹 본부에 유치신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 결과 유치 의사를 밝힌 나라는 이탈리아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아직까지 아시아에서 한반도 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대륙을 순회하며 세계대회를 연다는 것이 연맹의 전통이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으로 좁혀지고 있다. 개최지는 오는 9월 20~23일 호주 아델레이드에서 개최되는 15회 세계대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1972년 창립돼 현재 108개국 750개 단체가 가입해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유기농업 민간기구로 3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치위원회 사무국 ☎ 02-792-0934.

학교급식 유기농산물 공급 '호응'

아산 송남초·거산분교·송남중 학제

학교급식으로 유기농 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가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 송남초에 위치한 송남초등학교는 지난 해 7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키로 하고 푸른농업농조합법인 한살림의 지원을 받아 8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학부모 위원들이 주축이 돼 2004년도 1학기 중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송남초와 거산분교 학생, 교직원 등 300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송남중 학생까지 포함, 420여명에게 유기농 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유기농 산물 공급은 80kg 1포 8만원 정도되는 정무미 가격에서 유기농 쌀값 33만원의 차액금 중 20만원(80%)은 한살림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만원(20%)은 학생들이 월 1000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올 3월부터 먼 이차 지역 초등학교 및 유치원생들의 무료 급식 실시 관계로 추가부담이 필요한 차액마저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아산에서는 처음으로 유기농 쌀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송남초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에도 이바지할 뿐 아니라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가정에서의 식생활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7월1일부터 화학비료 보조금 전면폐지

유기질·부산물비료 보조금 늘며

7월1일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가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면 21%비율 등 26%비율의 농민 판매액은 평균 18% 안팎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화학비료시장 위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기질·부산물비료 보조를 늘려나가 올해 245억원인 유기질비료 지원은 2008년 420억원, 2007년에는 750억원으로 늘리는 등 화학비료 보조 폐지로 잠정된 예산을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운영열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29개 OECD 회원국 중 집소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부터 친환경 단지를 지정, 지원하는 등 친환경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농민들도 발상을 잘 잡아갈 바란다"고 말했다.

미생물로 잡초를 제거한다?

농진협 개발, 내년부터 상용화 가능

미생물을 이용해 잡초를 없애는 친환경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원 연구소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올방개 지문무늬병균'으로 불리는 미생물 제조체는 미국 식물병리학학회지에 소개돼 학술적인 업적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게 농업연구원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이 미생물 제조체는 살균과 썩어 방고체 형태로 만든 다음 묘내기 20일 후 논에 뿌려주면 벼의 생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연중 올방개 제조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농업연구원 연구소는 10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이 미생물 제조체의 특허를 지난 1996년 획득한 데 이어 올 초 농가 실증시험을 모두 마치고 민간 바이오벤처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이 미생물 제조체로 올방개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뿐 아니라 논농사에 있어서 제조체 등 농약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055-850-1147

제8회 충남유기농업인대회



▲ 정진영 회장이 농업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강조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초·중·고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유기농식자재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축사를 하고 있다.



▲ 본행사 후 열린 제2부 부대행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마련했다. 사진은 이광주(천안병천지회)가 김홍주(천안)에 당첨된 회우에게 김(친환경농산물)을 전달하는 모습

▶ 6면에서 이어짐

우수회원에게 시상이 끝나고 이계용 도지부장은 대회에서 세계·개방화의 물결속

에서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인이 생존의 길임을 역설했다. 이어서 정진영 회장은 격려사에서 농업부본도 세계적인 무한경쟁에 있기에 고품질·안전먹거리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함을 강조하고, 미래세대의 건강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추진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경재 농산과장이 대독한 심대명 도지사 축사에선 대회개최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대회를 준비한 이계용 도지부장과 지회임원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이 있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축사도 있었다. 개회식을 마치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연구원 친환경농업과 최두희 과장의 "친환경농업의 원리와 이해"란 주제의 특강이 이어졌고, 회원들은 행사장내에 충남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



▲ 농림청장회 충남지역본부 이광주(천안)가 최은영(서산)·김동진(예산)·성민서(서천) 회우에게 충남지역본부장 상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부상:농산물품질관리원)



▲ 이계용 충남도지부장이 신영준(예산)·이종희(공주) 회우에게 도지부장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는 모습(상)과 충남도지사·본회 회장·도지부장·충남원농업지원장상·농림청장회충남지역본부장상 등을 수상한 회원들의 모습(하)

▶ 1면에서 이어짐

아이들의 건강하나 지켜내지 못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운위(云謂)는 사기행위다!

현재 전국의 234개 시·군·구별에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남의 순천시로서, 조충훈시장을 비롯한 시청 산하의 1,300여명 공무원은 물론 시외의 의원들의 전폭적인 공감과 협력하에,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 원생들까지를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자재비 지원에 연간 30억3천만원을 집행하면서 이를 계속 늘려나가기 위한 재원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여타의 233개 시·군·구의 수장들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루속히 2~3억씩밖에 안되는 형식적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행태를 과감히 타파하고, 실질적인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과감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며, 화우등지 여러분들도 지지체결로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촉구' 캠페인이나 시민대회를 주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각 시·군·구별 여성 소비자단체들이나 환경운동단체들과 연대함은 물론 각급학교의 운영위원들을 설득시켜 나가는데, 본회의 각급지회나 도지부 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정적일 것임을 명심하고 같은 각으로 목격계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됐을때, 비로소 화우등지 여러분들이 생산해내는 지역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유통도 원활히 하

루어지면서 화우들의 친환경유기농업 실천의욕 또한 더욱 고약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地産地消運動(지산지소운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그 지역내에서 소비시켜 나가자는 운동)이 본격화되어갈 때 학교급식을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과 함께 친환경유기농업실천에 따른 지역내 환경의 개선이나 자연생태계 회복에 이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정도가 열리면서 농민들의 소득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一石五鳥(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화우등지 모두가 분발하여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길 바라는 바이다. ◆대통령님이하 정치·행정·경제·사회·농민지도자들의 대오각성과 실천적인 어린이 건강살리기운동 전개를 아울러 대통령님이하 모든 공복을 받고있는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은 물론 정치·행정·경제·사회·농민지도자들의 올바른 현실인식과 대오각성에 미래세대의 동량들이 어린이들의 건강지킴이에 팔을 걷어부치고 앞장설으로써, 물질적인 허상만을 추구하다 점차 가장 중요한 국가미래대계를 크게 그르치고 말았다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죄인들이 되지않도록 분발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며 또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